

“우리가 해냈어”... 월드컵을 제패하다



프랑스는 16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월드컵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4-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프랑스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

프랑스, 20년만에 월드컵 제패

프랑스가 20년 만에 왕좌를 되찾았다. 2018 러시아월드컵의 주인공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16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4-2로 꺾었다. 1998년 자국 대회에서 첫 우승의 기쁨을 맛본 프랑스는 20년 만에 두 번째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앙투안 그리즈만(아를레티코 마드리드)을 필두로 킬리앙 음바페(파리생제르맹),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음골로 캉테(첼시) 등 프랑스월드컵을 보고 자란 선수들이 역사를 썼다. 당시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빈 디디에 데샹 감독은 사령탑으로 영광을 재현했다. 데샹 감독은 마리오 자갈투(브라질)와 프랑크 베켄바워(독일)에 이어 선수와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세 번째 인물이 됐다. 16강을 시작으로 3연속 연장을 치른 '기적의 팀' 크로아티아는 첫 우승 문턱에서 프랑스의 벽에 막혔다. 아쉬운 판정에서 비롯된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의 자책골과 비디오판독(VAR)에 이은 페널티킥 실패 등 운도 따르지 않았다. 크로아티아는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프랑스에 2-4로 패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준결승에서 프랑스에 막혀 도전을 멈췄던 크로아티아는 사상 첫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재현된 악몽에 고개를 숙였다.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으나 크로아티아의 여름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 크로아티아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2018 러시아월드컵

크로아티아전서 4-2로 꺾어 골든볼은 크로아티아 주장 모드리치에게 돌아가 골든 글러브는 벨기에의 티보 쿠르투아가 획득 베스트 영 플레이어에 음바페

그바와 캉테가 중원을 지켰다. 크로아티아는 투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와 이반 라키티치(FC바르셀로나)로 중원을 꾸렸다.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이반 페리시치(인터밀란)도 정상 출격했다. 경기 초반 예상을 깨고 크로아티아가 주도권을 잡았다. 좌우 측면 공격이 활기를 띠면서 프랑스를 당황시켰다. 프랑스는 크로아티아의 압박에 잔심수를 쏟아냈다. 좋은 내용이 골로 귀결되진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가 전반 18분 선제골을 가져갔다. 그리즈만의 프리킥이 수비에 가담한 만주키치의 머리에 맞고 득점으로 연결됐

다. 월드컵 결승에서 자책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로 무너질 크로아티아는 그러나 아니었다. 10분 뒤 균형을 맞췄다. 모드리치부터 시작된 약속된 세트피스에서 골이 터졌다. 모드리치의 발을 떠난 공은 동료들의 머리를 거쳐 페리시치에게 배달됐다. 페리시치는 접는 동작으로 수비수 한 명을 따돌린 뒤 왼발슛으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정확히 10분 뒤 프랑스가 두 번째 골을 얻었다. 코너킥에서 페리시치가 핸드볼 반칙을 범했고, 주심은 VAR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그리즈만이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 2-1을 만들었다. 뒤진 채 반환점을 둔 크로아티아는 후반 시작과 함께 총력전을 펼쳤다. 후반 2분 안테 레비치(프랑크푸르트)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으나 위고 요리스(토트넘)가 손을 뻗어 쳐냈다. 프랑스는 후반 9분 부진하던 캉테를 빼고 스티븐 존슨지(세비야)를 투입했다. 그리고 5분 만인 후반 14분 포그바의 골로 격차를 벌렸다. 포그바는 오른발 슛이 수비벽에 맞고 나오자 지체 없이 왼발슛으로 연결. 팀에 3-1 리드를 안겼다. 행들의 연속 득점에 막내 음바페도 힘을 썼다. 후반 20분 골키퍼의 중심을 무너뜨

리는 강력한 슛으로 4-1을 만들었다. 만 19세207일의 음바페는 17세249일로 1958년 스웨덴 대회 결승전을 지배한 '축구 황제' 펠레에 이어 월드컵 결승에서 골맛을 본 두 번째로 어린 선수가 됐다. 크로아티아는 후반 24분 요리스의 실수를 틈타 만주키치의 골로 따라붙었다. 불씨를 살린 크로아티아는 남은 시간 총력을 기울였지만 프랑스의 골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월드컵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은 크로아티아 주장 모드리치에게 돌아갔다. 정상에 오르진 못했지만 8강급으로 평가받던 크로아티아를 결승까지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드리치의 수상으로 최근 6개 대회 연속 우승팀 선수가 골든볼을 놓치는 이색 징크스가 이어졌다. 실버볼은 벨기에의 4강을 지휘한 에당 아자르(첼시)가 차지했고, 그리즈만이 브론즈볼을 수상했다. 벨기에에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첼시)는 골든 글러브를 획득했다. 득점왕을 의미하는 골든슈는 잉글랜드 공격수 해리 케인(토트넘)이 가져갔다. 케인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은 6골을 넣었다. 음바페는 베스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뉴시스

손흥민·조현우·황의조 자카르타AG 와일드카드에

황희찬·이승우도 AG 국내 발탁 AG는 내달 18일부터... 韓, 2연패 도전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활약한 손흥민(26·토트넘)과 골키퍼 조현우(27·대구FC)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와일드카드(24세 이상)로 합류한다. 일본 J리그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황의조(26·감바 오사카)도 태극마크를 단다. 김학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16일 오전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가 포함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엔트리 20명을 발표했다.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선수들만 출전이 가능하지만 3명 이하에서 와일드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김 감독은 러시아월드컵에서 제몫을 한 손흥민과 조현우 선발로 금메달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만 28세 전에 군 복무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해외에서 뛰 수 없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4주 기초 군사훈련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다.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할 수 있다. 유럽 진출을 기대하는 조현우도 같은 맥락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멕시코, 독일과의 조별리그 2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고 조현우는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나서 신들린 선방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황의조는 올 시즌 J리그에서 7골을 넣으며 부활했다. 러시아월드컵에서 된 황희찬(잡초부르크), 이승우(엘라스 베로나)도 공격진에 이름을 올려 손흥민과 함께 나선다. 수비수 중에서는 아쉽게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 김민재(전북 현대)의 이름이 눈에 띈다. 월드컵 최종엔트리 승선이 유력했지만 대회 한 달여를 앞두고 부상으로 낙마했다. 발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유망주 이강인(발렌시아)은 결국 제외됐다. 지난달 소집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던 백승호(지로나)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 열린다. 축구는 18일 공식 개막식에 앞서 시작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바레인과의 E조에 속했지만 최근 조 추첨에서 참가국이 누락된 것이 확인돼 다시 추첨을 할 예정이다. 한국 축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뉴시스

마이클 김, PGA 존 디어 클래식서 생애 첫 우승

재미동포 마이클 김(25)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서 첫 승을 신고했다. 마이클 김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샬비스의 TPC 디어런(파 71)에서 열린 존 디어 클래식(총상금 58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쳐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7언더파 257타를 친 마이클 김은 생애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존 디어 클래식 사상 최다 언더파, 최소타 신기록을 작성했다. 2위 그룹과 8타차를 기록한 완벽한 우승이었다. 프란체스코 몰리나리(이탈리아)와 브론슨 버군(미국) 등은 19언더파 265타를 쳤다. 지난주 밀라터리 트리뷰트에서 우승한 케빈 나(35)에 이어 2주 연속 재미교포가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1, 2, 3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사실상 우승을 굳힌 마이클 김은 9번홀에서 포타시 버디를 낚아 타수를 줄였다. 후반 라운드에서 파세이브를 이어가던 마이클 김은 16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첫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재미동포 존 허(28)는 이날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최종합계 16언더파 288타로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휘(26)는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14언더파 270타로 공동 16위에 올랐다. /뉴시스

‘화려한 조연’ 크로아티아, 투혼으로 끝까지 질주

2018 러시아월드컵이 프랑스의 통산 두 번째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결승에서 프랑스와 맞붙은 크로아티아는 명승부의 화려한 조연으로 손색이 없었다. 거둬낸 헐투로 체력이 일찌감치 고갈됐지만 끝까지 상대를 물고 늘어지며 크로아티아 축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크로아티아는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프랑스에 2-4로 패했다. 1998년 프랑스 대회 준결승에서 프랑스에 막혀 도전을 멈췄던 크로아티아는 사상 첫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재현된 악몽에 고개를 숙였다. 원했던 결말은 아니었으나 크로아티아의 여름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 크로아티아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아이슬란드와 조별리그 D조에서 경합을 벌였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버틴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의 강호 나이지리아, 유로 2016을 통해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아이슬란드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다. 크로아티아는 탄탄한 중원을 앞세워 어렵지 않게 상대를 쓰러뜨렸다. 7골 1실점의 이상적인 기록으로 3전 전승을 거둬 16강 무대를 밟았다. 이들의 지력은 토너먼트 들어 도드라졌다. 덴마크와의 16강에서 연장전 포함 120분을 1-1로 마친 크로아티아는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진출했다. 개최국 러시아와도 8강에서도 크로아티아는 '11m 톨렛' 격인 승부차기에 운명을 맡겼다. 골키퍼 다니엘 슈비시치(AS모나

코)는 러시아 첫 번째 키커와 세 번째 키커의 실책을 유발하며 팀을 4강에 올려냈다.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서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내줘 끌려갔다.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크로아티아 선수단을 감쌌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후반 23분 이반 페리시치(인터밀란)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추더니 연장 후반 4분 마리오 만주키치(유벤투스)의 마무리로 승부를 뒤집었다. 모두가 프랑스의 우위를 점친 결승에서도 크로아티아의 질주는 계속됐다. 프랑스가 달아나면 곧바로 따라붙으며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들의 투혼을 직접 지켜본 축구팬들은 모든 것을 쏟아내 크로아티아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뉴시스

